



「패밀리 투게더」 솔선수범하는 ‘명문’ 7지역

: 서울한강, 서울무악, 서울장안, 서울화산, 서울장원, 서울빛그림, 서울낭만, 서울호서



7지역대표 안중원(서울무악RC)

7지역 대표, 서울무악 로타리클럽의 안중원입니다. 저희 7지역은 서울한강, 서울무악, 서울화산, 서울장안, 서울장원, 서울빛그림, 서울낭만, 서울호서 로타리클럽 등 8개 클럽 29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7지역 클럽들은 금년도에 지구 운영 방침인 ‘Family Together’에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 왔습니다.

서울무악 로타리클럽이 회원 부인 15명으로 구성된 서울무악-올타리 위성클럽과 전력회원들을 다시 모셔온 서울무악-아너스 위성클럽을 창립하고, 호서대 재경동문들로 구성된 서울호서 로타리클럽이 새롭게 창립되어 패밀리투게더 회원증장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화산 로타리클럽을 주관클럽으로, 7지역 클럽들과 지구보조금 등 6,000달러 규모로 서울지역 그룹홈 어린이 시설 후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7지역 클럽들은 매달 회장, 총무 모임을 클럽별로 순회하여 개최하여 친목도모와 클럽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끈끈한 우정의 모임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7지역은 한국로타리 유일의 RI회장 출신이신 이동건 전RI회장님과 금회기년도 이순동 총재를 배출한 명문 지역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지구 사업과 로타리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패밀리 투게더를 실천하는 서울무악 로타리클럽

연세대 동문으로 구성, 금회기에 위성클럽 2개 창립 등 115명으로 회원증강

- 창립일 : 1995년 10월 27일
- 회원수 : 2018년 6월 8일 기준 115명
(서울무악 로타리클럽 80명 / 율타리 위성클럽 15명 / 아너스 위성클럽 20명)



서울무악RC 회장 강석건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건)은 연세대학교 학부 동문으로 구성된 클럽으로 로타리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고자 1995년 10월 27일 창립한 혼성 클럽입니다.

클럽의 주요 봉사 사업은 현재 미혼모숙소 애란원에 대한 매월 정기 후원과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매월 정기 후원, 추석맞이 마트 장보기 행사, 스케이트 강습 행사, 송년 발표회 후원, 해외 수학여행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벽화그리기, 1318 서대문 후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장학사업, 고아원 방문, 양로원 방문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3650지구와 함께 몽골에 Green School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 동 로타리 클럽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로

타리 클럽과 상호 방문을 통하여 국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클럽 및 회원이 연세대학교에 기부한 누적금액이 약 97억원을 넘어 연세대학교에서 그 봉사정신을 기리고자 연세대학교 백양로 지하1층 백양누리에 위치한 갤러리를 “무악로타리홀” 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회원증강을 위하여는 학창시절부터 선후배로 이어져 온 회원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장점으로 살려 전문직업인으로 봉사활동에 뜻을 가진 연세대학교 후배들을 추천 받아 회원증강을 할 예정이며, 총재 배출클럽으로서 Family Together를 실천하여 서울무악 율타리 로타리 위성클럽과 서울무악 아너스 로타리 위성클럽, 그리고 서울호서 로타리클럽을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48주년 맞은 서울한강 로타리클럽 「혁신과 협동으로 강한 로타리 클럽을 만들자」



서울한강RC 회장 유한중

서울한강로타리클럽은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며 클럽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로타리 경력을 토대로 서울한강로타리클럽을 “혁신과 협동으로 강한 로타리 클럽을 만들자”는 테마에 맞춰 더욱 발전되고 회원 간 친목이 어느 때 보다 빛나는 해였습니다.

1) 제28회 일본 히메지니시RC와의 자매결연 친선 연례 교류회

1988년 10월에 양 RC간 우호친선 교류시작을 계기로 1990년 5월 5일 서울한강RC 창립 제20주년 기념식날 히메지니시RC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부터 매년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며 합동주회를 하고 있으며, 올해 28주년 동안의 지속적인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28주년으로 2018년 4월 13일~15일 동안 히메지니시RC에서 방한하여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며 평창 인근인 오크밸리에서 합동주회를 갖고, 평창올림픽 경기장 및 낙산사 등을 방문하며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들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순서로 합동주회 후 2부 순서로는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클럽 신입회원 박노승 회원님의 영부인(심화영 여사)이 소속된 “비트스타” 난타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친선교류회의 축제 분위기가 배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클럽의 친선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우의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희망하게 되는 친선의 시간이었습니다.

2) 동호회 활성화

우리 클럽은 비즈니스동호회와 골프동호회가 매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회원의 자기개발 및 친목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클럽친목 강화를 위한 부부 동반 야유회

서울을 벗어나 10월 말에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신규회원들의 단합과 회원들의 클럽활동을 내조하고 있는 영부인(가족)을 초대하여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까운 강화도를 방문하여 많은 유적지를 돌아보며 참석자 모두가 역사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더 강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마련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4) 제48주년 창립기념

2018년 5월은 서울한강로타리클럽의 창립 48주년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클럽이 되고자 회원 모두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창립기념주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다가올 창립 50주년을 위해서도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여 뜻깊은 창립기념일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클럽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클럽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 회원 증강

이번 회기 동안에 5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하였습니다. 이동건 전RI회장님께서 3명, 정정웅 전회장 및 이영석 사찰님이 각각 1명씩 추천하여 클럽의 회원 증강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며 친교와 봉사를 실천하는 서울장안로타리클럽



서울장안RC 회장 오규섭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은 1995년 10월30일 서울장충로타리클럽의 스폰서로 50명의 창립회원으로 창립하였다.

창립 당시 총재특별대표는 전광영, 초대회장 안승철, 총무 민병진으로 매주 수요일 12시에 서울클럽에서 주회로 창립한지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은 로타리안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친교와 초아의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2시 오찬주회, 둘째 주 화요일 골프주회, 셋째 주 수요일 저녁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례주회는 창립부터 서울클럽에서

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25명입니다.

초아의 봉사활동중 하나인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시온 찬양의 집”에 식재료 및 의약품, 의류 등 다양한 물품 및 위문공연 등을 지원 했으며, 주회와 골프주회, 송년주회등 행사에 부부 동반 참석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23년이 지난 현재에도 창립회원이신 오광현 전회장님과, 임재풍 전회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로회원님들의 지원과 지도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은 타클럽에 비해 젊은 회원들의 참여로, 신,구세대 로타리안의 조화를 이루어 클럽의 분위기가 활기차며 재미있는 로타리클럽으로 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회원들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한 클럽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서울장안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7-18년도 봉사활동은 다소 저조하였지만, 주회에 연사초청과, 2017년 송년주회에 더 보이스 챔버콰이어를 초청하여 앙상블의 선율속에 부부동반과 미래의 로타리안을 초청하여 송년주회를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개최하고,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5월 골프주회는 임재풍전회장의 사업체인 그랜드CC에 초청하여 부부동반과 게스트를 모시고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을 알리는 골프주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은 지금은 적은수의 회원이지만, 회원증강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앞으로 50년 100년 역사를 이어가는 서울장안로타리클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